

일본의 건축 및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관련 관계자 면담 및 시설 답사

2019.5.20 - 5.24
일본 도쿄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목 차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 출장목적	1
2. 출장일정 및 지역	1
3. 출장인원	1
4. 세부일정	2
II. 출장내용	3
1.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①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센서스 관계자 면담	3
2.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② : 일본 통계국 관계자 면담 및 통계자료관 견학	6
3.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③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건설분야 통계 관계자 면담	9
4.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①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관계자 면담	12
5.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② : 일본건축가협회 관계자 면담	14
6.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③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17
III. 기관면담 결과 종합	23
IV. 출장에 따른 연구 시사점	26
V. 취득자료	28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출장목적

- 일본의 건축 및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 및 시설 답사

-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센서스 관계자 면담

- : 일본 총무성 통계국 관계자 면담 및 통계자료관 견학

-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건설분야 통계 관계자 면담

- 일본의 건축 및 건축서비스산업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

-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관계자 면담

- : 일본건축가협회 관계자 면담

-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관계자 면담

2. 출장일정 및 지역

- 출장기간

- : 2019.05.20(월) ~ 2019.05.24(금) (4박 5일)

- 출장지역

- : 일본 도쿄

3. 출장인원

-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4. 세부일정

일자	활동지역	업무수행 내용
5.20.(월)	도쿄	- 도쿄 도착
5.21.(화)	도쿄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센서스 관계자 면담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조사통계그룹 통계기획실 스가와라 히로시, 연구지원실 나카이 유키)
		- 일본 통계국 관계자 면담 및 통계자료관 견학 (총무성 통계국 총무과 이나가키 요이치, 우메자와 히데오, 사쿠라이 마리코 외)
5.22.(수)	도쿄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건설분야 통계 관계자 면담 (국토교통성 건설경제 통계조사실 마쓰시타 요시노부)
	도쿄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관계자 면담 (건설경제연구소 키노시타 시게루 특별연구이사, 카사하라 유카리 연구원)
5.23.(목)	도쿄	- 일본건축가협회 관계자 면담 (일본건축가협회 조지 하라다 사무총장, 츠츠이 노부야 전무, 미야시타 케이)
5.24.(금)	도쿄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관계자 면담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키무라 유키미치 상무이사, 총무부 총무과 아베 요시히코 과장)
	인천	- 인천 도착

II. 출장내용

1.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①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센서스 관계자 면담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10:00-12:00
- 장 소 :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3-1(별관 9층 회의실)
- 목 적 : 경제산업성의 건축 및 건축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시행 및 DB구축 현황 조사
- 참석자 : (소외)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조사통계그룹 통계기획실 스가와라 히로시, 연구지원실 나카이 유키
(소내)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통역인 1인

2) 면담기관 개요 : 경제산업성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산업과 관련한 약 40여개의 통계를 실시하고 있음
- 大臣官房調査統計グループ (대신관방 조사통계그룹)에서는 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경제센서스-활동조사)를 통해 일본 내 전 산업분야의 전체 사업소 및 기업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총무성 및 경제산업성 공동시행, 5년 주기)
- 일본 표준산업분류상 우리의 건축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742-토목건축서비스업' 등이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조사대상에 포함



〈일본 표준산업분류에 기준한 경제산업성 작성 통계조사 목록〉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3) 회의 주요 내용

□ 일본 표준산업분류와 건축서비스산업

- 일본 GDP의 60%는 서비스산업이 차지함
- 일본표준산업분류(JSIC, Jap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최근 10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약 1년 반의 연구 기간을 거쳐 금년 3월 새로운 기준이 작성됨. 2021년 3차 경제센서스 조사에 적용 예정
 - 정부 각 부처 관계자가 매월 1번 회의 개최. 약 1년 6개월 간 진행
 - 개정 이유 :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구축 필요
 - 일본의 경제실태를 고려하여 통계항목을 설정함. 신조사표에는 인구사회, 경제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일본은 건축서비스의 개념이 부재하며 '건설서비스'로 표현. 기존에는 건설서비스의 개념도 없었으나 개정 분류표에 새롭게 등장
 - * 건설서비스는 한국의 건축서비스와 유사
 - * 개정된 산업분류는 총무성 홈페이지 '생산물 분류'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건설서비스 관련, 국토교통성에서 통계조사 대상 명부를 관리하고 있음

□ 통계작성 체계

- 일본 통계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총무성, 통계국에서 소관 기획하며, 각 부처가 각각 필요 통계를 작성
 - 총무성의 통계국에서 각 부처의 통계를 검토하고, 검토 및 협의 후 각 부처가 해당 통계를 공표
 - 총무성도 통계센터에서 직접 통계를 작성하기도 함(인구 등)
- 제조업, 공업, 상업, 서비스는 산업성에서 작성하며 건설통계는 국토교통성이 별도 구축 및 관리

□ 통계작성 및 조사 방법

- 기초조사와 활동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경제 센서스 조사는 기초조사와 활동조사의 복합조사에 해당함
 - 기초조사는 기본정보, 활동조사는 실태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총무성이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
 - 현재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 주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경제 센서스 조사 시에는 통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모든 부처의 타 조사를 정지하고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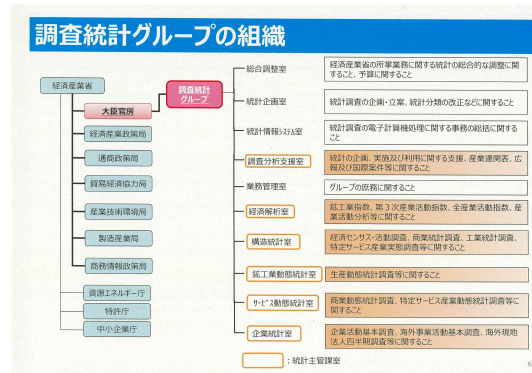
- 과거에는 각각의 부처가 각기 다른 조사를 각기 다른 시기에 추진, 일관성 확보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현재는 총무성 기획 하에 통일
- 개정된 3차 경제 센서스 조사 분류표 적용에 있어, 2차 조사의 추가 사항 적용 어려움
- 일반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47개의 도도부현에 비상근 지방공무원을 조사원으로 고용 (수만명)
 - 전업주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40만원의 최저 비용으로 현재 인력고용의 어려움
 - 조사비용은 100% 국가비용; 국가의 역할로 인식. 지자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기업의 경우 조사항목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음
- 특히 제조업 등 중요한 산업에 대한 조사는 국가가 민간사업체를 통해 '직접조사' 실시

□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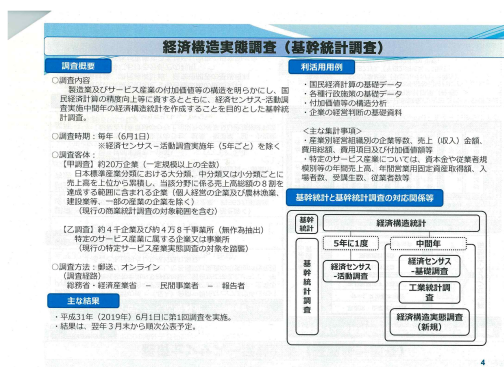
- 총무성과 산업성이 공동협력방식으로 예산을 확보. 다만 예산 집행에 대한 전체 기획은 총무성이 하고 산업성의 역할에 따라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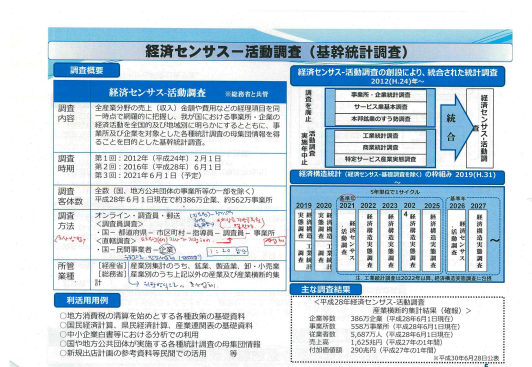
〈경제산업성 관계자 면담〉
출처: 연구진 촬영



〈경제산업성 大臣官房調査統計グループ 조직도〉
출처: 경제산업성 제공 회의자료



〈경제산업성 주관 경제구조실태조사 개요〉
출처: 경제산업성 제공 회의자료



〈경제산업성 주관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개요〉
출처: 경제산업성 제공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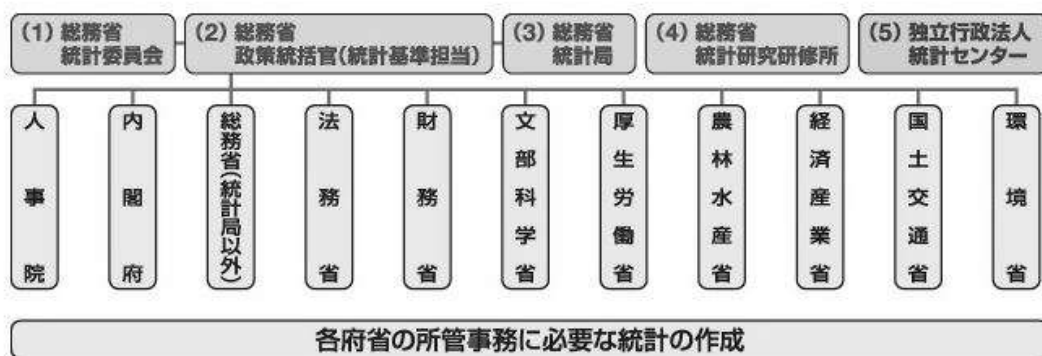
2.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② : 일본 통계국 관계자 면담 및 통계자료관 견학

1) 회의 및 자료관 견학 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14:00-17:00
- 장 소 : 東京都新宿区若松町19-1 総務省第2庁舎敷地内
- 목 적 : 1) 일본의 통계기구 및 작성 체계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관 견학 포함)
2) 통계국의 건축 및 건축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시행 및 DB구축 현황 조사
- 참석자 : (소외) 총무성 통계국 총무과 이나가키 요이치, 우메자와 히데오, 사쿠라이 마
리코, 마루야마
(소내)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통역인 1인

2) 면담기관 개요 : 통계국

-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에서 기본통계를 작성하고, 각각의 부처가 소관하는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방식에 해당
- 분산형 통계작성 방식에서 일본 총무성 및 총무성 통계국의 역할은, 자문, 각 부처의 통계 간 조정(기획, 입안, 심사, 조정 등), 국세통계작성, 통계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이 있음
- 위와 같은 총괄업무 외에도 각종 통계의 모집단조사에 해당하는 ‘경제센서스-활동조사’와 같은 통계를 직접 작성(동일한 시점에서 국가 전체의 포괄적인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일본의 통계체계와 총무성 통계국의 역할〉

3) 회의 주요 내용

□ 통계 작성 방법

- 현재 총무성 통계국 근무자 수 약 460명
-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방식은 대상에 따라 달라짐
 - 대상이 적으면 대상 기업에 조사표를 보내서 다시 받음
 - 전국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점점 인터넷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음
- 각 정부 부처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경제센서스에 건축서비스(건설서비스)항목을 추가
 - 국제표준산업분류 기준에 근거하며 일본의 특성을 반영하였음
 - * 총무성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 조사 실행은 하지 않음
- 총무성의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 통계는 각 부처 홈페이지 및 E-stat를 통해 공표

□ 근간 통계조사, 일반 통계조사

- 근간통계조사는 의무조사로 조사명, 기간, 방법, 범위 등을 작성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통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에 통과할 경우 경우 승인
- 일반조사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마찬가지로 통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각 행정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 실시. 조사의 규칙은 통계법에 따라 실시
- 근간통계는 개인, 법인의 조사항목에 관한 보고자료를 통해 실시. 의무사항이며 거부하거나 허위로 조사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됨(후속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음)
- 현재 통계조사는 거의 면담 또는 유선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조사비용 절감 및 조사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음
- 약 10년간 사업소의 모집단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신의 정보 유지를 위해 노동보험, 상업법인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갱신
- 표본설계는 조사담당부서가 기획하며 추출방법은 조사내용에 따라 달라짐

□ 통계 활용

- 국가 및 지자체는 정책입안을 위해 활용
- E-state공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정보 제공
- 경제센서스 조사는 소득세 부과, 산업 육성 및 기업 시책마련 등을 목적으로 활용



〈총무성 통계국 외관〉
출처: 연구진 촬영



〈통계자료관 내부〉
출처: 연구진 촬영



〈통계자료관 견학〉
출처: 통계국 관계자 촬영



〈통계자료관 기념촬영〉
출처: 통계국 관계자 촬영



〈총무성 통계국 관계자 면담〉
출처: 통계국 관계자 촬영



〈총무성 통계국의 통계관련 발간물〉
출처: 통계국 제공, 연구진 촬영

3. 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면담③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건설분야 통계 관계자 면담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 10:00~12:00
- 장 소 :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2-1-2
- 목 적 : 국토교통성의 건축 및 건축서비스 관련 통계조사 시행 및 DB구축 현황 조사
- 참석자 : (소외) 국토교통성 건설경제통계조사실 마츠시타 요시노부
(소내)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통역인 1인

2) 면담기관 개요 : 국토교통성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도시·건축·주택·항공·항만·운송·관광 등 17개 분야에 대한 약 107개의 통계를 운영하고 있음
- 総合政策局情報政策課(종합 정책국 정보 정책과)에서는 국토교통성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모든 조사, 정보 분석 및 통계 업무 및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総合政策局情報政策課建設経済統計調査室(종합정책국 정보정책과 건설 경제 통계 조사실), 住宅局住宅政策課 調査係(주택국 주택정책과 조사 담당), 土地・建設産業局企画課(토지·건설 산업국 기획과) 등이 건축·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 동향분석, 산업연관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내 통계 관련 페이지〉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3) 회의 주요 내용

□ 조사통계, 가공통계

- 통계법에 근거하여 작성
- 통계의 종류는 근간통계와 일반통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조사통계'에 해당함. 더불어 '가공통계'가 있는데 이는 기존 통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시
- 조사통계 및 가공 통계는 특정 목적 하에 조사표를 활용하여 실시
 - 국토교통성이 업무내용 및 조사표를 작성하여 47개 도도부현에 송부, 도도부현이 작성 한 후 다시 국토교통성으로 회신
 - 모집단은 건설업허가를 받은 사업체 목록이며, 전전년도 기준 완성된 공사 중 1억엔 시항을 수행한 1만 2000개 업체가 이에 해당함. 본 업체에 국토교통성이 직접 조사표를 보내 실시
 - 인터넷, 우편을 활용하며 약 60%가 회신함. 정보공유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조사결과 분석

- 조사표기계를 활용하여 분석
- 외부에 위탁을 하지만 위탁업체가 국토교통성 내부에 입주하여 작업.
 - 자료보존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작업해야 함
 - * 국토교통성 내부에 작업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
- 작업내용은 조사표 분류, 검토, 전산화 업무이며 1차 결과는 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로 발송하여 검토를 받아 신뢰도 제고. 해당 결과는 다시 국토교통성으로 발송하여 국토교통성 건설경제 통계조사실 홈페이지와 e-state를 통해 공표
 - * 국토교통성 주택국 통계의 경우 위탁업체가 검토까지 완료하기도 함
- 건설서비스 관련 통계는 주택국에서 관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업에 관한 자료는 부재

□ 기타

- (통계결과를 통한 일본 건설시장 동향 파악) 최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계약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주택국의 경우 재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대도시 분양맨션 수요가 증가함
- (토목과 건축) 토목과 건설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조경은 양쪽에 포함

[illegible]

출처: 국토교통성 제공 회의자료

4.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①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관계자 면담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 15:00-17:00
- 장 소 : 東京都港区西新橋3-25-33 NP御成門ビル 8F(건설경제연구소)
- 목 적 : 건설분야 민간연구소로서 건설경제연구소의 역할 및 국가통계 활용현황 조사 등
- 참석자 : (소외)건설경제연구소 키노시타 시게루 특별연구이사, 카사하라 유카리 연구원 (소내)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통역인 1인

2) 면담기관 개요 : 건설경제연구소

- (설립) 1982년 건설업 보증회사 3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 (주요역할) 건설업체에 산업,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 교류사업(MOU 등) 추진 수행
- (운영)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 건설업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위탁사업을 수주함
- (주요 연구주제) 사회 자본 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건설 투자 · 공공 투자에 관한 조사 연구, 건설 산업 · 경영 재무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공공 조달 · 계약 보증 제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주택 · 도시 문제 · 국토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해외 시장 국제 비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 성과물로서 발간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주요 자료로는 건설경제 보고서, 건설 투자 전망, 주요 건설사 실적 분석, 해외조사 관련 연구 등이 있음

研究テーマ	定期発表
以下のようなテーマで、自主調査研究および受託調査研究を行っています。	以下のような定期発表を行い、政策提言等を行っています。
□社会資本整備に関する調査研究 安全で快適な国土の形成に向けた中長期的な社会資本整備のあり方の研究	□建設経済レポート(日本経済と公共投資) (年1回発表) 建設投資、建設産業のあり方等に関する調査分析・政策提言報告書
□建設投資・公共投資に関する調査研究 四半期及び中長期の建設投資予測、建設投資のフロー・ストック効果等の研究	□建設投資の見通し (年4回発表) 建設経済モデルを用い、年度別・四半期別の建設投資を予測 政府建設投資・民間住宅投資・民間非住宅投資
□建設産業・経営財務分析に関する調査研究 建設産業の動向、経営財務・金融動向、地域の建設業等の調査分析	□主要建設会社決算分析 (年4回発表) 主要建設会社(連結売上高上位約40社)の決算分析
□公共調達・契約保証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内外の公共調達・契約保証制度、紛争処理制度等の調査研究	□研究所だより(Monthly) (月刊機関誌) 社会資本整備・建設産業・関連産業・国土政策等多分野の最新情報を提供
□住宅・都市問題・国土政策に関する調査研究 住宅・土地問題、都市整備・国土計画等に関する研究	
□海外市場・国際比較に関する調査研究 諸外国の社会資本整備、建設市場の動向、建設産業の実態等の調査	

〈건설경제연구소의 연구태마(좌)와 정기적 발표(우) 관련 내용〉

출처: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rice.or.jp/about/index.html>

3) 회의 주요 내용

□ 건설경제연구소의 주요 업무 및 국가통계·자체조사 관련 사항

- 국토교통성의 건설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건설 동향 분석, 건설업 통계 보고서 등을 발간
 - 건설 경제 보고서(연 1 회 발표): 건설 투자, 건설 산업의 본연의 자세 등에 관한 연구 · 정책 제언 보고서
 - 건설 투자 전망 (연 4 회 발표): 건설 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연도 별 분기 별 건설 투자를 예측, 정부 건설 투자 · 민간 주택 투자 · 민간 비 주택 투자
 - 주요 건설사 실적 분석 (연 4 회 발표): 주요 건설 회사 (연결 기준으로 매출 상위 40 개사)의 결산 분석
 - Monthly(월간 잡지): 사회 자본 정비 · 건설 산업 관련 산업 · 국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
- 연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통계관련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DB를 운영하는 것도 없음. 국가(국토교통성)를 통해 조사되는 데이터만으로도 일본의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
- 관계기관들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의 필요에 따라 건설 관련 의견조사 등을 시행하기도 하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 의견조사 수준
 - 건설업의 환경분야 대처에 대한 설문조사, PFI 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건설기업의 IT활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건설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동향조사 등이 그 예에 해당
- ‘건설협회’처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타 기관의 자료, 또는 ENR과 같은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도 함

□ 일본 건설산업,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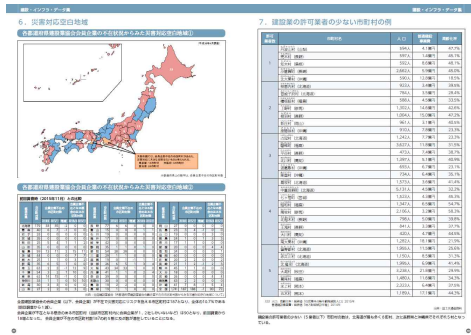
- 현재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일본 건설경기는 호황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건설산업 업무 분야 이외 외연 확장에 대한 수요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2020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건설산업 발주 및 계약 건이 많이 증가한 상황
- 일본에서는 건설과 건축서비스를 분리하기보다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특히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건축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일본의 경우 건설과 건축설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서도 수행이 가능
- 이 경우 설계가 끝나기 전에 시공업체가 관여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



〈건설경제연구소 관계자 면담〉
출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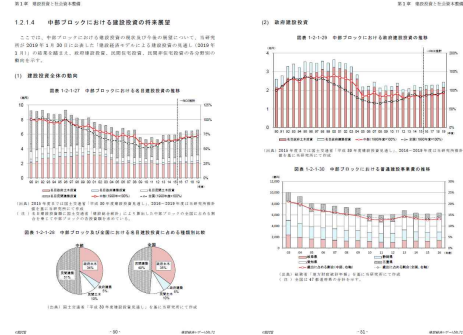


〈건설경제연구소 주요 발간물〉
출처: 건설경제연구소 제공, 연구진 촬영



〈일본의 재해대응 공백지역〉

출처: 건설경제연구소(2018),
建設・インフラ・データ集(トライアル版), pp.37-38.



〈일본 중부블록의 건설투자 미래 전망〉

출처: 건설경제연구소(2019), 日本経済と公共投資,
pp.50-51, 建設経済レポート, no.71, 2019년4월

5.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② : 일본건축가협회 관계자 면담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3일(목) 10:30~12:00
- 장 소 : 東京都渋谷区神宮前2-3-18 JIA館 日本建築家協会(일본건축가협회)
- 목 적 : 일본건축가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 및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데이터 및 DB구축 현황 조사 등
- 참석자 : (소외) 일본건축가협회 조지 하라다 사무총장, 츠츠이 노부야 전무, 미야시타 케이 (소내)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통역인 1인

2) 면담기관 개요 : 일본건축가협회

- 일본건축가협회는 건축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건축가들의 단체로서, 건축가 업무지원, 정책 및 제도 지원활동, 건축 관련 연구 수행, 건축상 운영, 등록건축가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일본 건축계, 건축가에게 미래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구축 업무는 미수행
- 건축가협회는 민간단체로 국가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소속 건축가들이 납부하는 회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건축분야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2007년 일본건축학회에서 발간한 “設計事務所実態調査報告書(설계사무소 실태조사 보고서)”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협력하기도 했음



〈일본건축가협회의 주요 업무〉

3) 회의 주요 내용

□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 일반적으로 산업현황에 대한 통계업무는 국토교통성의 주택국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 협회의 업무와는 무관함.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건축가에 관한 통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일본 건축사에 관한 정보는 건축사연합회에서 관리하며, 일본건축사사무소 연합회에서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관리
- 설계분야 국가통계는 국토교통성 주택국에서, 건설(시공)분야는 토지건설산업국에서 관리
 - 토지건설산업국의 경우 건설, 설비시공까지 포함하여 일괄관리
 - 주택국과 산업국이 정보관리의 일관성 확보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으며 결국 현재 상태 유지
 - 중소기업청에서도 설계사무소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축가,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앙케이트 조사는 그들의 협조가 어려움

□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자격제도) 일본건축사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1급, 2급, 목조 건축사 제도로 운영. 1급은 시공이 가능한 조건까지 포함하며 목조건축사 또한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사업발주방식) 국가, 민간 모두 비용절감 및 건축품질 담보 차원에서 건축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추세
 - 건설회사를 소유한 기업의 경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보다 정보입수 및 활용에 경쟁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물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설계만 운영하는 건축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주장; 건설회사에 유리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도권을 잃은 건축사에 대한 위상 제고 필요
- (신규 시장수요) 시장 니즈를 반영한 건축업무 방식의 변화
 - 주택을 상품화한 메이커회사, 에프터서비스회사의 주택시장 진출이 두드러지며, 이들의 주택 설계수준 및 품질이 높아 시장 경쟁력이 높음
 - * 다이와 하우스(주택보급회사 매출 3조엔), 코무텐(지역밀착형 업체)
 - 사업수주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회사로부터 설계의뢰를 받기도하며, 직접 고용이 되기도 함
 - 건축사의 의도가 100%반영되기 어려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시장현실을 고려한 대응 필요. 특히 건축사의 설계관리(CM 등) 역량 강화가 중요
- (업무대가기준) 한국과 유사; 공공에 국한된 대가기준이 있음
 - 민간사업의 경우 참조는 하되 의무대상은 아님



6. 통계활용기관 관계자 면담③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4일(금) 10:00~12:00
- 장 소 : 東京都港区芝5-26-20 建築会館5階 日本建築士会連合会(일본건축사회연합회)
- 목 적 : 일본건축사회연합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 및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데이터 및 DB구축 현황 조사 등
- 참석자 : (소외)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키무라 유키미치 상무이사, 총무부 총무과 아베 요시히코 과장
(소내) 김은희 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통역인 1인

2) 면담기관 개요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우리나라의 대한건축사협회처럼 건축사 자격증의 등록·각종 신청·명부열람·등록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된 등록기관이며, 그 밖에도 건축 관련 교육(CDP) 시행, 건축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일본 건축사법 제10조의 4(중앙 지정 등록 기관)〉

中央指定登録機関〔建築士法第10条の4〕

国土交通大臣は、その指定する者（以下「中央指定登録機関」という。）に、一級建築士の登録の実施に関する事務、一級建築士名簿を一般の閲覧に供する事務並びに構造設計一級建築士証及び設備設計一級建築士証の交付の実施に関する事務（以下「一級建築士登録等事務」という。）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中央指定登録機関の指定は、一級建築士登録等事務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一級建築士免許証、及び一級建築士免許証明書について



一級建築士免許証は、
携帯型の一級建築士免許証明書となりました。
※顔写真が入ります。
従来の免許証と効力は変わりません。

◆一級建築士登録関係の申請に手数料が必要となります。

新・建築士制度により、平成20年11月28日以降は、各種申請の際に手数料が必要となります。

その額は以下の通りです。

免許登録申請(新規登録)
19,200円
登録事項変更届・書換え交付申請 5,900円
書換え交付申請 5,900円
書換え交付申請(携帯型免許証明書への変更) 5,900円
再交付申請
5,900円

<注意>

* 免許登録申請(新規登録)の場合は、別途登録免許税(60,000円)を納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登録事項変更届・書換え交付申請と、再交付申請を同時に行う場合は5,900円です。

〈건축사 등록 및 자격증 발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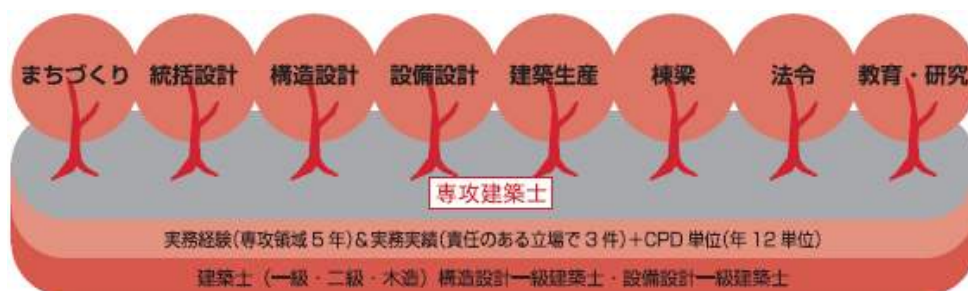
3) 회의 주요 내용

□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 건축사회연합회는 일본 1급 건축사 정보만 관리
 - 실질적인 통계작성은 국토교통성과 지방 도도현을 중심으로 실시됨
 - 1급은 국토교통성이 직접 실시. 국토교통성의 등록 행정기관을 본 연합회에 설치하여 운영
 - 2급과 목조는 47개 도도부현 건축사회에서 작성.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성이 집계
 - 관리를 위한 1급 건축사의 범위는 시공회사에 소속된 건축사, 구조 및 설비전문 건축사 까지 포함
- 사망 건축사에 대한 기록은 가족들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음
 - 따라서 명부상 100세 이상인 경우 자동 제외 등의 방법을 검토 중
- 조사는 1급 건축사 경력 신고자료 분석 방식으로 추진. 기타 특수 목적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실태조사를 수행함

□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 별도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건축사의 업역 확대 및 관련DB관리

- 전공 건축사 제도 : 건축사를 8개 전공으로 구분, 건축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
 -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 서서 자격을 고도화하고, 또한 다양화된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분화 된 건축사 전공 영역 및 전문 분야를 표시하여 건축사의 책임 명확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자발적인 제도
 - 2009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자체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음
 - 건축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 인증위원회에서 평가. 5년 단위로 CDP의 일정확점 이상 이수를 통해 자격증의 등록을 갱신하도록 되어있음
 - 전공 건축사의 자격 및 평가기준이 까다로워, 정보의 신뢰도가 높음
- 8개의 전공영역 : 실무 경험을 통하여 여러(3영역까지) 영역의 전공자로 등록 가능. 전공영역별 전문분야의 표시도 가능



〈전공 건축사 제도에 따른 8개의 전공영역〉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홈페이지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검색일: 2019.06.03.)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

	전공 영역	전공영역 설명
1	まちづくり (마을만들기)	① 도시 디자인, 도시 계획에 관련된 업무 개발 사업, 구획 정리 · 재개발 등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도시 · 마을 만들기의 기획, 조사 등의 건설팅에 관한 업무 ② 지역 주민이나 NPO 단체 등에 의한 경관 보존 ·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운동 · 지역 공헌 활동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 폭 넓은 지원 활동
2	統括設計 (총괄설계)	건축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에 관한 업무.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 건설 회사의 설계 부문 등에서 「건축 설계자」 「기술직원」등으로 종사하는 자. 기타 관청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단체 또는 민간 기업에서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APEC 아키텍트" 는 신청에 의해 인정된다.
3	構造設計 (구조설계)	건축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 구조 설계 및 그 공사 감리 등에 관한 업무. "1급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원」· 「구조 디자인 일급 건축사」· 「JSCA 건축 학사」· 「APEC 엔지니어 (구조)」는 신청에 따라 인정된다.
4	設備設計 (설비설계)	건축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 설비 설계 및 그 공사 감리 등에 관한 업무. 「1급 건축사」또는 「건축 설비사」자격을 가진 「2 급 · 목조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실무 경력 년수 5 년 중 먼저 자격 취득에서 산정) 건축사 면허를 가진 「JABMEE 수석」· 「시설 디자인 일급 건축사」은 신청에 따라 인정된다.
5	建築生産 (건축생산)	건축 시공 관련 분야 (현장 시공 관리, 적산 · CM 건축 리뉴얼 ·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 「1급 시공 관리 기술사」자격을 갖춘 건축사의 실무 경력 연수는 중 먼저 자격 취득에서 산정한다. 건축사 면허를 가진 「건축 적산 전문가」, 「건축 비용 관리사」로 일본 건축 적산 협회의 회원은 신청에 따라 「적산」에 인정된다. 주식 관련 단체의 자격을 갖춘 건축사는 신청에 따라 「진단 · 개수」에 인정된다.
6	棟梁 (동량)	① 일본의 전통 목조 기술을 계승하고 그 기술의 바탕으로 전통 건축 (사찰 건축 등)의 건축 생산 전체를 총괄하면서, 설계 · 공사감리 및 시공(목공 기술)을 행하는 업무 ② 일본 전통 목조 기술의 기초가 되는 규구술(規矩術)이나 목조 가구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을 현대 건축에 살려 목조 주택을 비롯해 학교 나 복지 시설 등의 설계 · 공사 감리 및 시공(목공 기술)을 행하는 업무 이상 ① 또는 ②의 업무를 진행하고 후진의 지도를 담당하는 입장의 사람
7	法令 (법령)	다음의 실적을 가진 1 급 건축사 : 법령의 수립, 건축 확인, 주택 성능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법원, 행정 기관, 건축사 협회 등에 대한 기술적 · 법적 입장에서의 지원 업무 또는 활동 (법원 지원 : 민사 조정 위원 민사 감정 위원 민사 감정인 행정 지원 칸 건축 공사 분쟁위원회 위원, 건축사 심사 회 건축 심사 회 건축사 협회 건물 상담 (법률 관련) 등의 실적). 「건축 기준 적합 판정 자격자」, 「건축 주사 자격 시험 합격자」는 신청에 의해 인정된다.
8	教育研究 (교육연구)	교육 기관 (공업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에서 건축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 또는 연구 · 조사 · 개발 기관 (대학 포함) 및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 등으로 특정 전문 분야의 연구 개발 등의 업무. "건축사"면허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홈페이지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검색일: 2019.06.03.)

○ 8개 전공영역의 전문분야

- 8개의 전공영역을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를 공개하고 있음
- 전문분야의 표시 이유는 소비자가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것이며, 전공 건축사는 자신의 전공영역 1개당 3개의 전문분야를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기가 마치 건축사가 실제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한하는 것처럼(표기사항 외엔 업무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님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

	전공 영역	전문 분야
1	まちづくり (마을만들기)	도시디자인, 경관 계획, 도시 계획, 재개발, 구획 정리, 유니버설 디자인, 방재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마을 만들기 어드바이저, 거리 보존 · 수경. 마을 만들기
2	統括設計 (총괄설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의료 시설, 복지 시설, 교육 시설, 생산 시설,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문화 시설, 종교 시설, 교통 시설, 숙박 시설, 물류 시설, 스포츠 시설, 어업 관련 시설, 사찰 건축, 스키야풍 건축, 전통 건축 보호 수리, 조경, 설비 관리, 프로젝트 관리, 건설 관리, 적산, 리모델링, 진단 · 개수, 농업 관련 시설
3	構造設計 (구조설계)	내진 진단 · 보강
4	設備設計 (설비설계)	에어컨, 급 배수 위생 설비, 전기 설비, 에너지 절약 정보 시스템
5	建築生産 (건축생산)	건축 시공 관리, 설비 시공 관리, 적산, 진단 · 개수, 공사 감리,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유지 관리, 리모델링 석면 진단 · 개수, 미리 절단, 건설 관리, 철골 공작도 확인, 청 대행 감정서 등 작성
6	棟梁 (동량)	사찰 건축, 스키야풍 건축, 전통 형 목조 주택, 고민가 진단 · 개수 · 재생 등 가야 葺合 掌造 리노베이션
7	法令 (법령)	건축 확인 · 검사, 성능 평가, 안전 검사, 건축 분쟁 조정, 특정 행정청 업무, 건축 상담, 감정서 작성
8	教育研究 (교육연구)	디자인, 건축, 환경 설비, 재료 · 시공 · 복지 공학, 건축 계획, 도시 계획, 건축 역사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홈페이지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검색일: 2019.06.03.)

○ 8개 전공영역별 신청 대상자의 자격 기준

- 건축사 면허 취득 후 실무경력, 실무경험, CDP학점이수 등 전공영역별 신청 가능한 자격 기준 있음

〈전공 건축사의 전공영역별 전문분야〉

전공영역	대상 건축사 자격 등	필요한 실무 경력(년)	실무 실적 건수	필요 CPD 단위	실무경력·실적에 준하는 기타자격
まちづくり (마을만들기)	건축사	건축사면허 취득 후 5년의 경력		-	「APECアーキテクト」
統括設計 (총괄설계)	건축사				
構造設計 (구조설계)	1급 건축사	+			「APECエンジニア (構造)」 日本建築構造技術者協会「JSCA建築構造士」 「構造計算適合性判定員」・「構造設計一級建築士」
設備設計 (설비설계)	건축사				
建築生産 (건축생산)	건축사	실무 경험 3년			建築設備技術者協会「JABMEEシニア」 「設備設計一級建築士」
棟梁 (동량)	건축사				
法令 (법령)	1급 건축사	+			日本建築積算協会「建築積算士」「建築コスト管理士」 ストック3 団体「5資格」
教育研究 (교육연구)	건축사				
		최근 1년 CPD 12학점			日本伝統建築技術保存会「正会員」 「日本伝統建築技能者」 「建築基準適合判定資格者」
					-

출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홈페이지 '전공건축사제도의 개요' <http://www.kenchikushikai.or.jp/senko-new/summary.html#no5> (검색일: 2019.06.03.)

○ 전공 건축사 관련 DB보유 및 검색시스템 운영

- 전국에 있는 전공건축사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인증 내용에 대한 전공건축사의 포트폴리오(건축사가 책임으로 담당했던 실무 경험 3건) 제공
- 도도부현별로 검색하거나, 전공영역, 전문분야, 이름, 회사 등의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지역과 목적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専攻建築士の検索

専攻建築士と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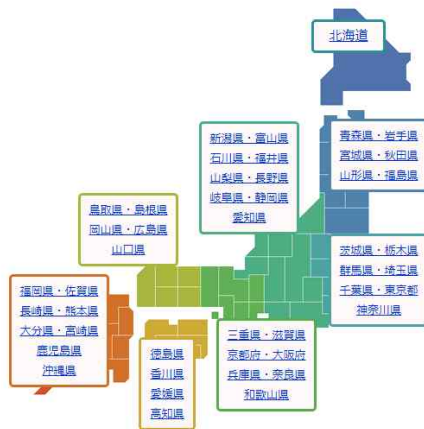
建築技術の高度化にともない、建築士の業務の専門分化は着実に進展しており、建築士は、少なくとも自らの責任の果たす専門領域と、そこでの自らの能力を消費者やクライアント、市民社会に明示する社会的責務があります。

そこで、本会では、建築士自らが自身の専攻領域、専門分野と、その知識、技能を社会に明示し、建築士の業務責任の明確化を図り、社会的責務を果たすとともに消費者の保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平成21年より専攻建築士制度の運用を始めました。

専攻建築士制度では、建築士の専攻領域を「まちづくり」、「統括設計」、「構造設計」、「設備設計」、「建築生産」、「棟梁」、「法令」、「教育・研究」の8領域に区分しています。

専攻建築士制度の詳細は[こちら](#)

エリアから検索する



条件で検索する

専攻領域	選択してください▼
専門分野	選択してください▼
氏名	<input type="text"/>
勤務先名	<input type="text"/>
勤務先住所	<input type="text"/>

※氏名をよみがなで検索する場合は、カタカナで入力してください。

都道府県を設定しないで検索する

〈전공 건축사 검색 서비스〉

출처: 전공건축사 검색 페이지, <https://aba-svc.jp/senkou-search/index.html> (검색일: 2019.06.03.)





III. 기관면담 결과 종합

1. 일본의 통계생산체제와 DB운영

- 일본의 국가통계는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이 필요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통계의 유형은 크게 '분산형 통계제도'와 '집중형 통계제도'로 나뉘어지는데, 분산형은 통계활동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이며, 집중형은 한 나라의 통계활동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공급하는 형태에 해당
 - 집중형은 국가통계의 균형발전과 장기적 통계정책수립에 유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통계의 작성을 방지하는데 용이. 그러나 하나의 기관에서 각각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채택한 방식)
 - 분산형은 각 기관별로 필요한 통계를 비교적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업무상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의 유사·중복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통계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통계의 질이 저하될 우려(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한 방식)
 -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에서 국가 전반의 경제현황, 인구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간통계(근간통계, 기초통계를 의미. ex. 국세통계, 경제센서스(경제산업성 협동))를 직접 수행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음
- 일본 총무성 통계국을 중심으로, 각각의 부처 간 통계에 대한 협의체계를 가지고 있음
 - 통계국의 역할은 기간통계 생산뿐만 아니라, 통계조정 업무 수행하고 있음. 일본의 모든 통계는 통계법에 근거하고 있음
 - 통계조정 절차는 기간통계와 일반통계 모두 '통계작성기관(부처)의 신규통계작성 신청 > 총무대신에게 제출 > 통계국 통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통계위원회 통과 > 총무대신의 승인 > 통계작성'의 프로세스를 통해 승인
 - 일본표준산업분류(JSIC)는 통계국의 소관 하에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10년간 개정이 없었음. 최근 개정의 주요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구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통계국 주도하에 월 1회, 약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각 부처 관계자간의 협의를 추진했음
- 국가통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DB를 통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부처에서는 자신들이 작성하는 통계와 관련한 통계DB 운영
 - 통계국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통계 외에도 국가통계 전부를 업로드하여 관리하는 통합시스템(e-Stat)을 운영
 - 각 부처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에 대한 정보, 통계자료 등을 제공. 부처별로 통계를 주관하고 DB를 관리하는 통계부서와 통계연구부서 등이 존재(분산형 통계제도의 단점인 통계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 통계에 대한 기획·시행·결과공표는 모두 중앙행정기관·지방 등 행정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조사대상자의 의견, 대부분 기업에 해당)의 의견을 수렴
- 통계조사의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신규통계의 기획이나 작성, 기존통계의 개선에는 정책입안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함
- 민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는 통계조사 결과의 활용 측면보다는,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편으로 주로 기업체에서 조사에 대응하는 부서나 담당자의 의견을 듣게 됨 (ex. 조사문항의 개수에 대한 의견, 조사 내용 작성 또는 공개의 부담 등)



〈일본의 주요 통계 행정기구〉

출처: 総務省統計局(2019), 日本未来をつくる「統計」-統計局等業務案内, p.1.
(총무성 통계국 제공자료)

2. 일본의 통계활용현황

- 건설분야 민간연구기관의 통계활용도 및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 또한 건설 산업의 통계활용도도 높은 편으로 예측
 - 국가통계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연간 산업보고서 발간, 분기별·월별 동향보고서 발간)을 통해, 산업 구성원에게 적극적인 산업현황 데이터 전달
 - 국가통계 외 활용하는 데이터는 사업체나 종사자의 의견조사 수준, 해외 데이터의 경우 해외 동향보고서 등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건설경제연구소의 경우 일부 위탁사업을 제외하고는 건설업 보증회사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건설업진흥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일본 건설분야의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건축설계분야의 협회 등은 통계조사(자료수집)에 대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는 하나, 통계활용도 및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
 - 건축사회연합회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음. 데이터의 수집 및 전달(국토교통성)에 집중. 그 외에는 통계에 대한 영향력이나 역할이 전무. 해당 데이터의 품질개선에 대한 노력 또한 연합회의 역할이 아닌 국토교통성의 역할이라고 생각(사망한 건축사에 대한 데이터 관리 등). 오히려 '전문 건축사 자격' 등과 같이 자체적인 자격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집중되어 있음
 - 일본건축가협회의 경우 건설 분야와 달리 건축설계 분야가 통계의 활용이나 필요성에 둔감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과 달리 건축설계 분야의 종사자들과 사업체들이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현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에는 사업체의 규모나 특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의견조사를 시행해도 참여도-응답률이 너무 낮음)
 - 건축설계분야 전반에 통계에 대한 활용도나 만족도가 낮으며, 필요성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IV. 출장에 따른 연구 시사점

1. 통계작성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의 정의 및 범위확립 추진

- 표준산업분류는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들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려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에 해당
 - 산업이 발생하거나 확대됨에 따라 분류가 다양(세분화)해지기도 하고 축소(분류상 삭제 또는 통합)되기도 하며, 또한 그 정의도 변화하고 있음
- 일본사례의 경우, 산업분야 통계조사의 근간이 되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대한 부처별 협력 체계 구축하여 개정 추진
 - 일본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일본표준산업분류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 대두. 10년 만에 일본표준산업분류 개정 추진
 -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관련부처들이 모여 협의를 추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 서비스*’ 개념을 만들게 됨
 - 주관 부처인 총무성 통계국, 산업에 대한 주관 부처인 경제산업성 그리고 건축·건설 분야 서비스업과 연관되어 있는 국토교통성이 협업하여 일본표준산업분류 개편 추진(국토교통성은 아직 건설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산업성 보다 미지근한 상황)
 - * 우리의 건축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건축에 있어 건설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함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시행 및 DB구축에 적용한다면,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은 물론, DB를 확대하거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DB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가능할 것
 - 현재 우리의 건축서비스산업도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적 정의에는 명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 우리나라도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산업 내 엔지니어링산업(건축엔지니어링)과 디자인산업(인테리어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관련해 이미 국가통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조사의 중복시행을 예방하고, 구축된 DB의 적극적인 공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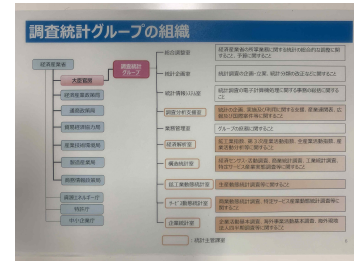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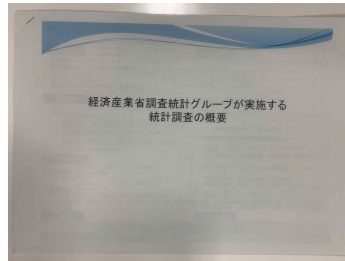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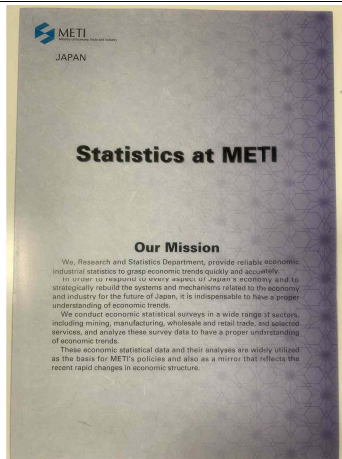
2. 정책적 목적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경제·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기획 필요

- 통계자료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관련 부처의 정책수립과 제도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통계는 조사 시행과 결과취합 및 정리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 또한 조사 항목이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千篇일률적이고, 정작 정책수립에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미흡
- 일본의 경제센서스의 경우 기초조사와 활동조사로 나누어 조사의 목적, 조사의 주기, 조사의 항목 등이 나누어짐
 - 기초조사는 사업체의 기본사항에 대한 조사(ex. 사업체명, 사업체의 매출, 사업체의 종사자, 사업체의 주요분야 등), 활동조사는 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ex.사업체의 주요분야에 따른 수행업무, 주요분야 외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조사)
- 두 가지 유형의 조사를 경제센서스(복합조사)라는 하나의 조사에서 시행함에 따라 산업·경제·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 기초조사와 활동조사는 동시에 시행되지 않고, 서로간의 조사내용과 통계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내용과 항목에 변화를 주고 있음. 이를 통해 산업의 변화(ex.하나의 업체가 더 이상 하나의 분야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 주요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 또는 이전에 시장 내 존재하지 않던 개념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것 등)
 - 그러나 관련 예산의 부담, 조사결과 취합 및 정리의 어려움, 응답자(사업체)들의 통계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기존의 통계조사 주기를 보다 짧게 줄여 자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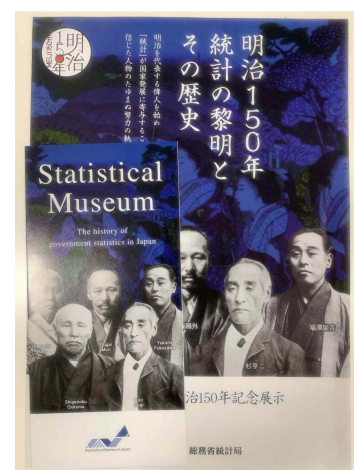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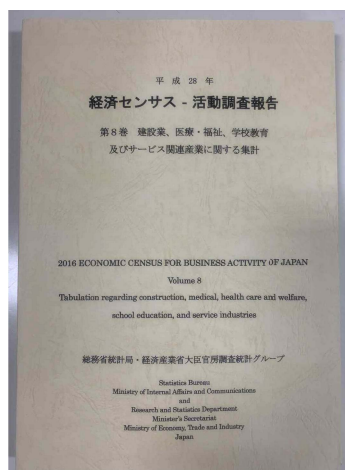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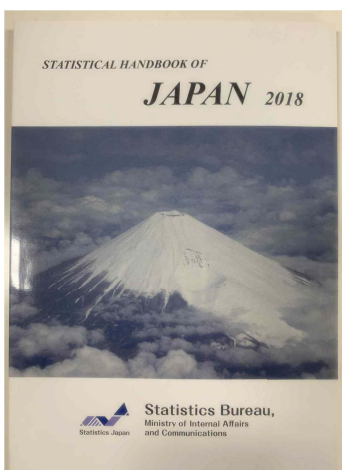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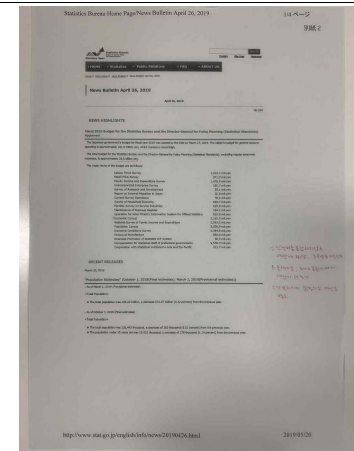
3.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DB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

- 통계조사 시행에 있어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 출장 결과, 일본의 경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으로 보임
- 통계조사와 DB구축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관련 연구에만 활용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개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를 위해 통계결과에 대한 민간의 활용도와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DB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만한 산업의 DB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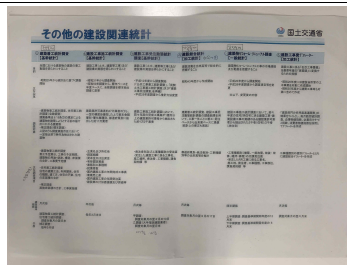
V. 취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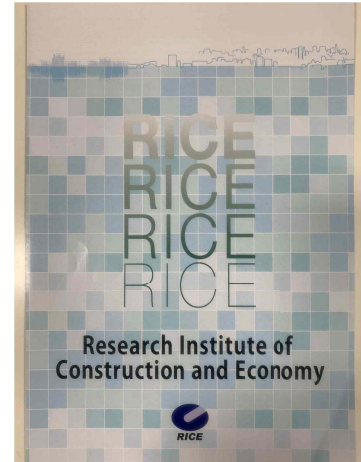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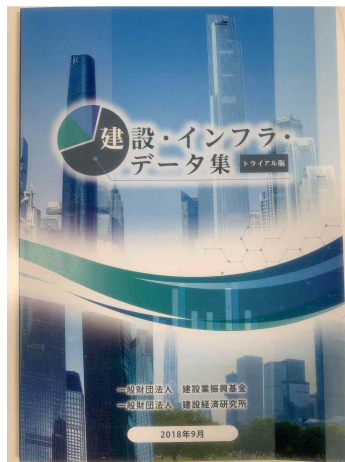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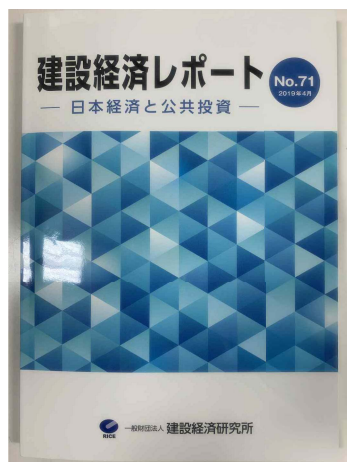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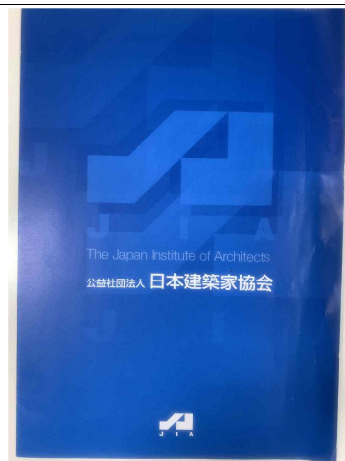
〈총무성 통계국〉



〈국토교통성〉



〈건설경제연구소〉



〈일본건축가협회〉